

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경석, 박명애, 변경택, 양영희, 윤종술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 | | | |
|----|-----------------------------------|------|-----------------|
|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배포일자 | 2018년 1월 31일(목) |
| 담당 | 조현수 | 페이지 | 총 4매 |
| 제목 |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1박2일 투쟁 선포 기자회견 | | |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은 응답하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만남시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1박2일 투쟁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1월 31일(목) 오전11시
- 장소 : 용산역 대합실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거주시설 희생자 합동추모제

- 일시 : 2019년 1월 31일(목) 오후7시
 - 장소 : 용산역 대합실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공동주최 :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해방열사 단
- ※ 추모제를 마친 후 1박 노숙투쟁에 돌입합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요 장애인정책 공약으로 약속하고 집권여당이 된 이후에도 관련된 제도 개편 등에 힘을 쏟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복지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동반해야 하기에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포함하여 법령 제·개정과 함께 장애인복지예산의 확대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국회에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하지만 20대 국회 임기를 불과 1년여 남짓 남겨둔 2019년 현재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 하는 ‘가짜 폐지’로 가고 있으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또한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예산 국회에서 관련 예산 심의시 ‘장애인연금의 대상 확대’와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그리고 ‘주간활동지원’과 ‘탈시설’ 관련 예산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밀실야합으로 줄줄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5. 작년 추석연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요구하며 서울역에서 농성 중이었던 당시, 귀성객 인사를 위해 서울역을 찾았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애인들의 요구에 구체적 답변 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또한 작년 예산 국회 당시 온 몸에 쇠사슬과 사다리를 묶고 국회 앞 도로를 점거하며 이해찬 대표 면담을 요구하였지만 끝내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6. 31년만의 변화를 맞이하는 ‘장애등급제’가 진정으로 장애인의 삶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OECD 평균의 장애인복지예산 확대와 더불어 소득·사회서비스·노동·이동·주거 영역에서의 제도 개편과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변화는 문재인정부와 함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서 국회 안에서 그 역할을 반드시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이에 전장연은 2019년 새해를 맞아 많은 귀성객들이 고향으로 떠나는 용산역에서 1박2일 농성을 진행하여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집중 선전과 함께 2월 1일 용산역 방문을 예정하고 있는 이해찬 대표를 직접 만나고자 합니다.

8.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요 요구안>

- OECD 평균 수준으로 2022년까지 장애인복지예산 확대!
-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 및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1박2일 농성 돌입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조직실장)

| | |
|--------------------------|--------------------------|
| 여는발언 | 양영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 투쟁발언 | 변경택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
| 연대발언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 닫는발언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 ※ 기자회견 후 용산역 1박 2일 농성 돌입 | |

<장애인거주시설 합동추모제 식순>

사회 : 박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가)

| | |
|-------------------------|------------------------|
| 민중의례 | |
| 여는발언 |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
| 추모발언 | 정명호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
| 추모발언 | 황선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
| 추모공연 | 지민주 |
| 추모발언 |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
| 추모발언 | (3대적폐 폐지 공동행동) |
| 추모발언 | 박김영희 (장애해방열사 단) |
| 추모발언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 분향 및 헌화 | |
| ※ 추모제 후 용산역 농성장에서 1박 노숙 | |

[첨부자료] 장애인거주시설 희생자 사건 개요

故 이광동님

- 원주귀래사랑의집에 거주하다가 영양실조로 2003년 사망,
- 10년간 병원 냉동고에 방치, 2012년 9월 23일 장례.

故 장성희님

- 의료적 방치로 2002년 병원에서 사망,
- 12년간 병원 냉동고에 방치, 2014년 1월 23일 장례.

故 장성아님

- 2012년 6월 21일 원주귀래사랑의집에서 구출,
- 치료시기가 늦어져서 직장암 3기로 2013년 1월 26일 사망.

故 이○○님

- 인천해바라기장애인시설에서 거주하다가 2014년 12월 25일 온 몸에 피멍이 든 채 의식 불명상태로 병원에 이송, 2015년 1월 28일 사망.

故 나범호님

- 故 이○○님의 의문사를 계기로 진행된 해바라기 시설조사를 통해 2014년 10월 15일 생활재활교사의 폭력에 의한 외상성 기흉, 심장압박에 의한 쇼크로 사망한 사실 밝혀짐.